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향상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이형수

도마가 농친 기회와 은혜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는 특별세례기도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두고 있었다. 연약한 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 주님은 여러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손과 발가락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오늘날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이와 같은 방문이 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영혼을 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운 방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요 20:24b). 그 결과는 도마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지만, 도마는 혼자서 의심에 싸여 있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도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25절).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소에 불참한 결과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위로와 확신과 평강을 놓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의 공적으로 모이는 집회에 빠질 경우, 그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특별히 주님의 일생을 따라 마가복음 전체를 묵상하며 배우고 기도하는 이번 '사순절 특별세례기도회'에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운 방문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도마처럼 신령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날마다 참석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자. 특별히 교구와 지역 안에서 서로 특별세례기도회 참석을 격려하며 차장도 함께 이용하는 등 함께 기도하는 잔치가 되도록 하자. 우리 주변에 도마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자.

주력교구: 해당 날짜에 교구식구가 중점적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일 시	교 구	일 시	교 구	일 시	교 구	일 시	교 구
2월 25일(수)	1, 7, 13 교구	3월 5일(금)	2, 8, 14 교구	3월 15일(토)	3, 9, 15 교구	3월 25일(목)	4, 10, 16교구
2월 26일(목)	2, 8, 14 교구	3월 8일(월)	3, 9, 15 교구	3월 17일(수)	4, 10, 16교구	3월 26일(금)	5, 11, 17교구
2월 27일(금)	3, 9, 15 교구	3월 9일(화)	4, 10, 16교구	3월 18일(목)	5, 11, 17교구	3월 29일(토)	6, 12, 18교구
3월 1일(일)	4, 10, 16교구	3월 10일(수)	5, 11, 17교구	3월 19일(금)	6, 12, 18교구	3월 30일(일)	1, 7, 13 교구
3월 2일(월)	5, 11, 17교구	3월 11일(목)	6, 12, 18교구	3월 22일(월)	1, 7, 13 교구	3월 31일(수)	2, 8, 14 교구
3월 3일(수)	6, 12, 18교구	3월 12일(금)	1, 7, 13 교구	3월 23일(화)	2, 8, 14 교구	4월 1일(목)	3, 9, 15 교구
3월 4일(목)	1, 7, 13 교구	3월 15일(월)	2, 8, 14 교구	3월 24일(수)	3, 9, 15 교구	4월 2일(금)	4, 10, 16교구

봄꽃보다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

2004년도 전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어느덧 새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새 생명의 기운으로 소생되면, 산과 들은 화려한 봄꽃으로 새 옷을 입으리라. 또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이리저리 물려다니리라. 하지만 봄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찬란한들 우리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아름다울까! 결코 그렇지 않다. 봄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이다(사 40:8). 그것들의 아름다움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영원하고 참된 아름다움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은 "봄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8)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봄의 문턱에 서서 다시 한 번 영원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 별 의미도 없는 일에 사람들이 들떠 분주한 이 봄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 차분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도록 하자(눅 10:42). 이를 위하여 본 교회는 교육훈련연구원 주최로 각종 교육훈련을 개설해 놓고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각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주간충현 6면에 실려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필요한 훈련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고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자. 화한날 이 봄에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주님의 들 안으로...

"주께서 배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사 65:4).

*관련기사: 6면 - 2004년도 전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3월 교회 일정

대성방

단기선교팀 파송

7(주일) 성찬식(2차)

10(수) 헌신예배(선교회원회)

정기 당회

충현전도대 훈련(4/28 추강)

남성구역장 훈련(5/26 추강)

14(주일) 제59기 교사양성부 개강(5/30 추강)

제29기 찬양대양성부 개강(5/30 추강)

16(화) 주간성경공부 학기 개강(6/2 추강)

21(주일) 공동의회(일요투표)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

다음 주일(3월 7일), 2004년도 제2차 성찬식

다음 주일 예배에는 1부에서 5부까지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시고 배무시는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요, 영광스러운 '주의 만찬'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주 주간충현 3면에 실린 위임복사의 다음주일 설교를 읽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란다.

*관련기사: 7면, '교회합방-성례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열정' 청년부의 새로운 출발

3월 7일(주일)부터 청년1부가 달라진다. 집회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로 한 시간 늦춰진다. 그 동안에는 청년1부 집회 시간이 교회학교의 각종 모임 시간과 겹쳐서 청년들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청년1부 집회 시간이 늦춰짐으로써 앞으로는 교회학교 등 여러 부서에서도 '열정' 청년1부 회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때와 다르게 청년1부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달려오고 있는 요즘,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온 교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주의 관용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라"(시 110:3).

이번 주간 겨울수련회 일정

부 서	시 간	장 소
청년2부	2월 29일 - 3월 1일	충현기도원
장년1부	2월 29일	제1교육관
신혼가정부	2월 29일 - 3월 1일	충현기도원
사망부	2월 29일 - 3월 1일	충현복지관
애미다부	2월 29일 - 3월 1일	제1교육관

3월 1일, 단기선교 팀장 수련회

지난주 수요 1부예배 메시지 요약 4면에

POWER OF LORD'S SUPPER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1 Corinthians 11:27-30)

The Lord's Supper joins only believers with the Word of God. Jesus Christ's comman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are orders to believers. God's grace comes only to the lives of believers. Jesus planned and made this Supper for His own people. Through it, He achieves His goals, God's purpose. As such, believers must practice this special ceremony, for only believers can remember the power of Jesus Christ.

Humans did not make this ritual. Jesus made it for believers, not unbelievers. This Lord's Supper does not give new hope to non-believers. It only asks believers to join. Its witness of the Gospel comes from those who already know Jesus. The Lord's Supper is not the tool of the gospel; it is the testimony of the gospel by those who have experienced its power. Christians who partake know that the Lord's Supper is His command, confession, blessing, and message.

At the Lord's Table, we find th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Our Lord Jesus sacrificed Himself for our sins, life, and future. This is the grace and mercy of God. If you want to join His Supper, you have to have sure faith. You have to have sure witness of His body and blood. Whoever joins, in their heart they must have great thanksgiving, praise, and spiritual growth. Spiritual growth only comes through the Lord's body and blood. When that happen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makes believers grow. That is why I have titled this sermon, "Power of the Lord's Supper".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are not automatically spiritualized. The bread and cup are not the blessing tools. The believers of the Corinthian church had joined so many Lord's Suppers, but they denied the power of them. The result was judgment,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v. 30).

The Lord asks individual believers to search seriously their hearts before taking this meal because of its power. The result depends upon your faith. If you do not take it with solemnity, you get sick. If you take it seriously, you will receive heavenly blessing. Why is that? It is because the Holy Spirit is at work in the Lord's supper. Therefore, believers examine yourself before participating.

With their physical eyes, believers see the bread as the body of Christ and the cup as the blood of Jesus. With their physical mouth, believers eat the bread and drink the cup. The message of the Gospel is both physical and spiritual. John 16:13 says,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The Holy Spirit will touch, in whatever way God wants, all the believers who come to the Lord's Supper today. The Lord's Supper is God's plan, order, and blessing. So, when you take this one, do not take it without the Word of God. Again, please search your heart deeply.

My dear friend, during this Lord's Supp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ll be working on your heart. His works will depend upon your situation. For your sin, th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will wash it away. Remembering Jesus Christ died to forgive your sin brings you redemption, and gives you eternal life. Knowing the power of His love, remember Him seriously. Join now, through the body and blood of Jesus. You will deepen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United with Him, you will have eternal joy, and your spiritual life will grow. Your faith will strengthen. You are redeemed, so you have a future. You are a child of God! You are waiting for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the day that you can join in the eternal Lord's Supper in heaven. Jesus is calling you now,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men. 

다음주일 설교

주의 만찬의 능력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전 11:27-30)



김성판 목사

오직 신자만을 위한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오직 신자들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을 시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 참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신자들의 삶에만 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만찬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주의 만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신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신자들뿐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복음의 수단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확증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축복과 메시지이요 고백임을 압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주의 만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누어집니다. 주의 만찬에서 나누어지는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휼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위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만찬의 능력’이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의 만찬에서 나누어지는 떡과 잔이 항상 축복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주의 만찬에 참여했지만 주의 만찬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30절).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만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일 건성으로 참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만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나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신자들은 눈으로 주의 만찬에서 나누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나누는 잔을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입으로 주의 만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성령의 역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성령께서는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루만저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음에 이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주의 만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여러분의 죄를 말각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구속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며 예수님을 진지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주의 만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연합되어 영원한 기쁨을 맛볼 것이며,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구속받은 여러분께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영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장로 칼럼

장로 칼럼

복음의 빛 아래 행하는 행정



진홍훈
(장로, 행정위원장)

지난 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마지막 선교팀이 출발했다. 새벽기도회를 마친 장로님들이 모두 선교로 로마에 모여 출발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환송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1개팀 10명의 젊은 학생들이지만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며,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회 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라서 행정력이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곧 목회행정이기엔 관점과 안목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행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경우, 교역자들이 직접 행정을 맡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행정을 전적으로 장로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와 영적인 지도 외에 모든 행정을 장로들이 하고 있다. 예배, 찬양, 교육, 전도, 선교, 봉사, 인사, 기적, 교구, 재정, 건축, 재정, 법안운영 등 모든 분야의 일들을 장로들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결정하고 시행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같이 교역자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행 6:4)하는 심정으로 목양에 전념함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행정을 바르게 할 때 목회에는 말할 수 없는 정도도 많은 유익함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오늘 우리 총현교회는 교회를 복음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 나가며 예수·복음·심장가의 길로 화교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교인들이 세속과의 싸움에 부를 풀지 않으려고 전심포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며, 하나님만 바라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성경적인 단기교회 사역을 꾸준히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은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데서도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직접 행해 나갈 때 바른 행정이 가능한 일이다.

총현교회는 1984년에 충무로에서 역삼동으로 이사했다. 교회 행정의 큰 일중 하나는 이제 20년이 지나가면서 노후된 각종 건축물, 배수, 시설들을 부분적으로 보수, 수리, 영성을 해 하는 일과 총체적으로 이들의 관리를 하는 일이다. 설로 그 일은 무분별 방패하다. 매 주일 1-5부 예배 및 저녁에 배, 수요일 1-2부 예배, 금요일교회, 매일 새벽기도회에 사용되는 **본당**, 23개 교회학교와 교구 모임, 사무국으로 사용되는 **계1교육관**, 교·대·청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계2교육관**, 주중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총현보건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되는 63세대의 **신복양관**, **계1·2·3** 장애인 **총현빌라**, 당회실, 각 위원회, 상근부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선교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물만 해도 10여개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사설 운영되는 경기도 광주의 **총현기도원** 또한 67,000여평에 달하는 **총현모지동산**의 관리영역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상근 사무국은 목회 지원, 대관청 업무, 성도를 위한 각종 행정적인 일들과 교역자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총현어린이집, 성도들의 장례, 결혼에 관련된 업무 모두 교회 행정에 관련된 일이다. 최근에는 계1교육관 및 식당의 전면 리모델링, 선교관의 부분적인 보수 등도 주된 환경장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 여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한치의 차오도 없이 세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면서 교회의 5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큰 밑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하고 중대한 일들이 행정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이 동참하여 이를 열어나 갈 갈고 담으되 기쁘이 나가느냐에 달린 일이다. 현재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들이 있다. 즉 주자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안내를 받아 질서 있게 주자하는 일, 평일에 주자서 교우 식사 구간에 주자하는 일, 과묵 박시 텍에서 조심있게 운전하는 일, 모든 예배와 집회가 끝나고 나갈 때 피자 양보하는 일, 전기와 수도를 아껴 사용하는 일,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일, 필요한 수량만 배식하는 일, 모임 후에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모임 일정에 반드시 참석 청원을 하는 일, 물 컵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일, 교회 내에서 절제된 기쁨 외에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일 등 이루 말하기가 정화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다.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일들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행정의 특성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담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오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라는 법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가질 때에 이런 사소한 일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도 복음의 정신, 진정한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런 일들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다. 이 일은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교만이 살아 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기를 부리고 자기에게서 볼 줄을 찾았으니 곧 심자가에 죽으심이라"(골 3:2)라는 주님의 심정으로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작은 일도 가능한 것이다. 법의 강제가 아닌 은혜 속에 전행되는 행정을 추구하며 실현되는 총현의 행정에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하든 "자기를 부리고 남보다 더 세심하게 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눅 9:23)라는 말씀 앞에 굴복하며 자신을 돌아 볼 수밖에 없다. 늘 자신을 보면 뭉수룩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가를 깨닫으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으며 살아계는 것이다. "주님 오늘날 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행정조차도 복음의 빛 아래 행할 때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요엘 2:1-2)

요나히 나그네 성에 들어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그곳 사람들은 제 우에 앉아 회개했다(은 36).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다. 우리 역시 재에 앉아 회개하며 사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성서에서 호락을 하여 미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나그네 됨이라 이제 압박하였으니(산절). 이것은 은총의 사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위험의 경고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성령을 판단하고 그것을 널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압박한 심판을 알려리는 말씀이다. 영적 교만으로 잠자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15절).

주님은 우리의 책임을 알려주신다. 기도하라 하신다. 금식하라 하신다. 하나님의 날을 정하고자한다. 이 경고가 총현교회의 경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한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곧 임할 것이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날은 하나님의 공격의 날이 될 것이다. 맑고 강한 백성! 이 심판을 위해서 오고 있다. 그들은 왜 오는 것인가?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인간의 정치도 아니다. 하나님의 압박한 심판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일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그것이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날인 오늘, '재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 우리도 재에 앉아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무서운 임위의 신학이다 - 실로 기독교는 무서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기독교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라. 성경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은 그치고 강대국들의 압제로 아들과 공포 속에 사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다한 상황 속에서도 선명한 말씀과 메시지의 도를 깨어내서 그들이다.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신자가 아들이 예언을 선포한다. 세세 요한이 광야에서 다시 금주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보를 기다려 하더나 -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버려 던지우리라"(눅 3:7-9). 이 경고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뭐라 대꾸하고 불기둥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의 사죄와 재물과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세세 요한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은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리이까?"(10절).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고백이 있었나? 어떤 고백이 있었나? 지난 일에서 마음을 정하며 몸부림쳐라 한다.

어디를 향해 행했는가? -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삼종교와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들을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에서 육지 건너게 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메루자미의 산으로 배를 타게 하시고 두드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다(출 13:4-6).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다. "...애굽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애굽 상인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출 14:12). 흑시 사람들이 위하여 행한가는 우리는 아닌가? 자신은 흑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출 32:9). 목이 바른 것은 무슨 뜻인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다. 목이 곧은 것과 그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간 장난 그들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다는 핑계를 대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인간의 것을 만들었다. 이 얼마나 패역한 것이며 뻔뻔한 것인가? 우리는 그러할 만치 말라. 어머야이처럼 순순하게 말씀 알으므로 돌이키라(막 11:25). 모세는 그들이 만일언어 했던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기루를 불태워 물에 뿌린 다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을(출 32:20). 우리도 이와 같이, 사실 우리에게도 일들이 많은 금송아지가 있는가? 모든 것들을 부수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 죄 뿐이라고 고백하며 정결함을 구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고의 말씀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셨다. "여호와와 하나님께 너희는 이스라엘로 금식하라"며 애초부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이키고 말씀에 마음을 쏟을 것이라 하고 마음을 찾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라(은 2).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능히여 더하시며 우리에 크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렐 21:23). 또한 늘리는 약속을 주신다. "그 후에 내가 너를 만민에 대하여 부를 줄 때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 너희 능력이 온기를 우리 자녀들께 전하는 이 성을 볼 것이라 그 때에 내가 또 내 소년으로 넘치고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렐 22:29,32). 이야 놀라 온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약속은 시온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것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 6:28,29).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 첫 번째 날의 수요일에 우리들 돌아 올 메시지가 되리라(출 5:2). 교회가 모든 것께 지니는 사순절 기간에 구경이 되지 말라.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라. 우리 자신을 부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종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언어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렇게 하면 단기선교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캄보디아에 도착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너무나 적고 보잘 것 없다고 느껴졌다. 무릎 꿇고 땅바닥까지 낮아져서 오직 기도로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때만이 약한 영이 권세 잡은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진리 앞에 깨지기 시작했다. 몇 마디 줄 아는 언어에 자칫 교만해지는 마음과 우리보다 부족한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해지는 모습이 깨져서 했다.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선교해야 한다고 느꼈다.

김병우 (집사, 직면 4명)

복음어필요한 국가들 ①

캄보디아



'캄보디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마른 벼들이 가득한 평야와 세 개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앙코르 유적지이다. 그 두 모습은 지금의 캄보디아인들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1975년에서 1978년까지 크메르루즈에 의해 자행된 참혹한 민족말살로 인구의 삼분의 일이 살해당했고, 그때 죽은 사람들의 뼈는 그들의 산천을 뒤덮었다. 또한 뒤이어 계속된 내전은 캄보디아인들을 극한 죽음의 고통으로 내몰았다. 그 긴 전쟁으로 그들은 육체적, 정서적 장애와 가정의 파괴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파파와 고아가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우상으로 가득 찬 하나의 도시인 앙코르 유적지는 그들의 궁지이자 자랑이다. 현재 일년에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오는 명소이기도 하다. 앙코르 유적지는 한때 동남아를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 왕조가 12세기 초에 건립한 도시이자 사원이다. 그 도시는 크메르 제국이 1434년 멸망하면서 버려져 500년 동안 밀림에 남아 있다가 1861년에 발견되었다. 그 당시 조지 작품들은 힌두교의 시바신과 비슈누신을 그리고 점차 불교의 관세음보살의 상을 세우거나 건물의 벽 사면에 새겼다고 한다.

이제 캄보디아는 1998년에 내전이 종결되어 정치적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아직도 땅과 다름을 갖지 못했다. 인구의 90%는 불교도인이며 그 가치관과 문화 속에 갇혀 살고 있다. 또한 긴 내전으로 가난, 극한 빈부 격차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극한 생존원리만 남아 있다. 현재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헛된 우상뿐이다. 그 땅은 이제 복음의 생기가 절필 필요하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렘 37:3).

국명: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베트남, 라오스와 태국 사이)

면적: 남한의 2배 가량

기후: 열대몬순, 우기(6~10월), 건기(11~4월)

수도: 프놈펜(Phnom Penh)

인구: 1,200만명

언어: 크메르어(Khmer)

민족(인종): 크메르인(80%), 베트남(13%), 화교(3%), 기타 참족 등 30여 인종

종교: 불교(90%), 기타 이슬람(3%),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등 (성공회연합회 제공)

선교 사역일지

힌두교의 본산인 인도에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간구했고, 결국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선교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첫째 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참고로 인도에는 축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축제가 우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감사했고, 하루 종일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 공원이나 종합운동장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일행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알리지 않고 각자 흩어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라"(고후 4:5).

셋째 날 차량을 운전하던 현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21명의 대가족이었는데 모두 나와서 우리들을 맞이해주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우리를 따라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넷째 날 자동차로 지나는 길에 학교 운동장에 용기둥이 모여앉아 쉬고 있는 어린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하고 싶어서 먼저 선생님께 양해를 구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면서 그 어린이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그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고전 3:6).

다섯째 날 축회전도를 하고 돌아오던 길에 작은 시골학교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 교장 선생님이 먼저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며 전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되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여섯째 날 학생수가 1,500명이나 되는 큰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팀장과 통역과 현지인이 학교에 들어가 허락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학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초조하다 못해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곳 교장 선생님은 크리스천이었고,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1개 교실을 전부 다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숙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인도 땅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저희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덟째 날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인도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팀장을 제외한 팀원 전체가 여자였고, 그것도 어린 중학생들이 4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희 팀은 매우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구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b).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났습니다.



최종란 (집사, 1교구)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장	기간	선교지	팀장
2월 16일(월)~2월 25일(수)	G 대학부	신상수	2월 16일(수)~2월 28일(토)	B 대학부	박찬섭
2월 16일(월)~2월 25일(수)	J 대학부	강형현	2월 18일(수)~2월 28일(토)	B 대학부	최준덕
2월 17일(월)~2월 25일(수)	D 2교구	박종규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장
2월 23일(월)~3월 2일(월)	D 대학부	정영두

*선교위원회 방문으로 인하여 국기영은 발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연구원

2004년도 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개강

주간강경구부

2004년 3월 16일(화) ~ 6월 2일(수), 12주 간

출애굽기(신실과목)

와요일, 1930~2100/장 풍 복사사/제1교육관 304호

우리는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 죄를 멀리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1).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어 자기 위해 친히 출애굽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또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에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모학사상설의 역할을 합니다(갈 3:24).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므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 원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성결하게 함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살아야 거룩한 열매(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출애굽기 공부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와요일, 1930~2100/이태복 목사/제1교육관 309호

느헤미야는 기독교적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탁월한 도전이 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지도자 리더십의 관점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분석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헌신적 삶을 통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어떤 심정, 어떤 태도로 헌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와요일, 1930~2100/최종철 목사/제1교육관 308호

빌립보서의 배경에 깔린 분위기는 기쁨이며, '기쁨'이라는 바울의 권면은 본 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그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며, 그 자신이 옥 중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간증함으로써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참 기쁨을 보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증은 실로 사울은 사울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 있어(대담속 29)는 사실을 실감케 합니다. 복음은 고난 중에서도 진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며 바울의 권면이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소망과 축복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며 '12'라는 빌립보서의 편지를 공부해 나가면 '이제 내게는 살라는 것'이 그리스도니 즉 그는 모든 유한한 것(12)는 바울의 고백이 세를 게 음미되는 순서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사기(신실과목)

수요일, 1400~1530/류병의 목사/제1교육관 309호

사사기는 약삭빠른 각 가문에서 일어나는 정복전쟁을 끝낸 후, 여호수아를 포함한 일단의 1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1세대가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놀라게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은 47기 반백되는 '순환'을 계속 진행시키시니(대물소환-심판-부르짖음-사사를 통한 구원-평화-불순종-...).

이 반백되는 순서 속에서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극히 신성 - 그 때에 율법이 없으므로 모든 사

람이 자기 소전에 옳은 대로 행함(17:6)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자상'입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를 통하여 대적자들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과정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사자 사단을 통하여 죄인된 인류를 구속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수요일, 1400~1530/안영덕 목사/제1교육관 207호

'마태'는 '주님의 선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선포와 같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놀랍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설명을 해 주시듯 오해의 땅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어디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성경을 더 많이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 주님이 메시야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던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주위성과 내 삶의 주된 되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내 삶이 놀라게 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수요일, 1400~1530/김영숙 목사/제1교육관 301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요 1:1a).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성이 얼마나 크셨으면 하늘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부르신데 우리는 빛으로 생명이요 살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무엇이든!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야 이 야고보가?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신실과목)

수요일, 1400~1530/김익환 목사/제1교육관 304호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의 시작이 나오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요 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사도들에게를 명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사도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흔들리며 신앙의 회로해가 하는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에베소서

수요일, 1400~1530/임현덕 목사/제1교육관 308호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선택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개화하신 참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어 어떻게 살지 해야 할지 무엇을 하야 할지 어떻게 하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삼위의 하나님의 삼위와 교회의 일치, 부름받은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찢어 버리시는 화해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갈등의 대표적인 상징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찢어 버리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합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편견과 차별로 가득찬 지상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공부를 통해 참된 교회의 원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사양성부

2004년 3월 14일(주일) ~ 5월 30일(주일), 12주 간

매 주일 1500~1630, 배다나홀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싶지만, 실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여 주저하고 계십니까? 교사양성부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실제적인 지식을 골고루 갖추실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아주는 훈련, 성경연구방법과 실재를 익히는 훈련, 성경구문과 문법실경과 주교법을 배우는 훈련, 구원론과 기독교와 교회론 등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확립하는 훈련, 삼위의 자애와 사랑을 배우는 훈련, 반목회 요령을 배우는 훈련 등 다양한 실제적인 훈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신실하고 유능한 교사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문안은 교육국으로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찬양대원 양성부

2004년 3월 14일(주일) ~ 5월 30일(주일), 12주 간

매 주일 오후 1500~1630, 제1교육관 304호

신성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음악적 소질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성가대원이 봉사하기 전에 좀 더 훈련을 받고 싶으십니까? 찬양대원 양성부에 좀 더 시오. 탁월한 강사진과 잘 짜여진 훈련과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보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성훈련과 합창연습에 이르기까지 음악적 훈련을 탄탄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대원의 자세와 영적인 찬양에 대한 귀중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는 찬양을 기다립니다. 참가 신청은 교육국으로, 자세한 문안은 찬양원원회교한 258번으로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전도대원 훈련

2004년 3월 17일(수) ~ 5월 12일(수), 8주 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나사렛홀

일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강사
3월 17일	전도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전도 의무	방문형 목사
3월 24일	전도의 내용	전도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	
3월 31일	전도의 의미와 내용	전도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	
4월 7일	전도술(1)교주전도 전도	전도술(1)교주전도 전도	
4월 14일	전도의 실재적 문제	전도 시 부딪히는 실재적 문제	
4월 21일	전도방법 및 반대론	전도방법 및 반대론	
4월 28일	전도술(2)전도교주전도	전도술(2)전도교주전도	
5월 12일	수료예배	예배 및 수료식	

*참가신청 장소: 교육국(제1교육관2층)

*제1교육관 2층 방문형 교육국에 비하여 있는 유관기관을 참조하십시오.

교회탐방 ⑤- 성례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한다. 그곳에 담긴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즙을 받아 들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흐르는 피를 기억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중 본득 공금이다. 떡크룩은 늘 그렇게 정갈하고 떡조각은 자로 켄트 반듯이 며 포도즙은 그렇게도 깨끗하게 입정한 분량으로 담겨져 있었다. 누가 남으려는 곳에 은밀하게 숨어서 그것들을 준비했을까? 이 공과고도 정당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성례부를 담당한다. (대담에는 김단웅 장로님, 김석은 권사님, 안성영 안수집사님이 응대 주셨다)

포도즙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포도즙에 대해서는 명문과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은 매해 당그도 금년에 사용할 성찬식 포도즙은 작별의 목은 것을 사용하고 올해 만든 포도즙은 내년에도 사용합니다. 기도와 함께 잘 익은 포도를 한 알 한 알 따서 포도즙을 담요로부터 사실상 성찬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떡은 수요일에 찌웁니다. 금요일 오후에 오랫동안 성찬용 떡을 만들어 온 떡집에서 떡을 받아서 이튿날 썰기에 중독로 적당하게 굵이지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든 봉사원들이 모여 성례를 준비하기 위한 예배를 드린 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떡조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떡을 썰어 한 판에 45개씩 약 230개 정도와 떡크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찰조는 용기에 일정한 양의 포도즙을 담는데, 포도즙을 담는 일은 특별히 청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치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도구로 용기의 8부에 해당하는 분량의 포도즙을 한 잔 한 잔 담는 후에 일어 일정한 검사를 합니다. 포도즙의 양을 맞추는 일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지요.”

설거지를 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례부에는 설거지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찬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들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성찬에 사용된 모든 물품들은 세제를 일일 쓰지 않고 오로지 뜨거운 물로만 여러 번 정하게 씻습니다. 세제를 쓰면 간단할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성물을 만지는



데 청성을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에는 조금 덜 하지만 여름에는 뜨거운 물에 포도즙 잔을 넣었다가 깨는 일이 고충이라면 고충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삶은 양조로 조심심심 용까지 않게 닦아서 다음 성찬 때까지 보관합니다.”

성례부의 일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우리 부서에는 현재 50여 명의 권사님과 세 명의 안수집사님이 계십니다. 일꾼은 자원하는 권사님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의 성격상 다른 부서의 일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례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해진 기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숙련된 솜씨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꾼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 뒤를 이어 새로운 일꾼들이 오십니다. 올해도 열여섯 분이 은퇴하시고 그 자리에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신임일꾼들을 모셨습니다.”

성례부 일꾼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은혜를 받고 계신다고요?

“물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은 성찬식이 훨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 마음과 몸을 아주 청하게 관리하며 건강한 시간을 보냅니다. 떡을 만드는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봉사요원들과 집례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떡과 포도즙은 분명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즙을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순서를 택하셨다. 그들은 바로 성례부의 여러분들이다.

(정리/편집실)

복음의 길을 걸읍시다 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주어진 한 날도 오직 은총으로만이 가능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도성에서 살아야 하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입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만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차별없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자가 되었습시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죽어야만 합니다. “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시야만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 즉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만 주님께서 가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걸어야하는 합니까? 그 길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영원한 생명은 오직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복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찢으시고 개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시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신행과 자식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전혀 없습시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시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하느님 우리는 모든 길과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골 3:9).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이 죄인인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 안에서 걸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자신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위 간증(목사, 6교구 지도)

다음 주일 찬송

281장 “아무 흠도 없고”

다음주일 찬송인 ‘아무 흠도 없고’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있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3절과 4-6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상해 보자.

- 1~3절: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할 것이다.
4~6절: 주님 재림의 그 날까지 우리에게 지주신 십자가를
절 감당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널리 찬미하라는 결심과 각오를 새로이 하여 찬양하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성찬의 의미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이 찬송을 깊이 목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축·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2	이성준	1 소망부	유지현(1)	255	김종상	9 고동부	이연희(9)
243	안희관	3 청년부	신우정(3)	256	이정희	10 외신부	정명자(4)
244	안정숙	4 청년부	이성숙(4)	260	김형중	10 청년부	김정연(4)
245	박성부	4 청년부	김연진(17)	258	이경현	10 대학부	이형숙(7)
246	박순자	5 장년부	전진표(18)	259	이은미	10 청년2부	황태현(19)
247	김현성	7 장년2부	최상기(18)	260	김형중	10 청년부	김정연(4)
248	홍순정	8 장년부	정명자(9)	261	김수남	10 청년2부	김진영(19)
249	이원진	9 청년부	이영환(12)	262	한석남	10 청년3부	김정연(13)
250	최두희	10 외신부	이진주(1)	263	최정민	10 예배대부	박민기(1)
251	정영선	13 장년1부	정영순(13)	264	이리나	10 외신부	심 훈(15)
252	김영호	18 장년3부	영정자(8)	265	이교리	10 외신부	송정애(7)
253	이인숙	18 청년부	김정현(17)	266	김민태	10 외신부	정혜명(14)
254	김승애	19 중등3부	김태희(6)				

충주교회회의 한 가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축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권사 전체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갈말리촌
2. **권사 임원 지도회**
일시: 3월 3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3. **충현전도대 영성훈련**
일시: 3월 3일(수) 13:30~15:00
장소: 나사렛홀
4. **남녀전도부 영성훈련**
일시: 3월 9일(화) 19:00~21:00
장소: 갈말리촌

별 세

1. 고점승 성도 김영자 권사의 모친, 이천호 집사의 장모, 8교구 구의3구역/ 20일 별세, 22일 장례
2. 장영구 성도 허상인 집사의 시부, 10교구/ 21일 별세, 23일 장례
3. 이진옥 타교권사 장송규 안수집사의 장모, 이영숙 집사의 모친, 2교구/ 24일 별세, 26일 장례

결혼

1. 유일준 군 (이온수 성도의 아들)과 최희연 양
(임선영 권사의 딸, 15교구)/ 3월 1일(월) 15:00
대검찰청 예식장(별관 4층)

◆ 교육 1·2·3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회계 정기감사 실시

감사기간 : 2004년 3월 중
 대상기간 : 2003년 10월 ~ 2004년 1월
 감사장소 : 감사위원회실(교 302호)
 준비서류 :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등

◆ 2004년도 상반기 수화교실

기간 : 3월 7일 ~ 6월 27일 (매 주일)
시간 : 15:15 ~ 16:30
장소 : 초급-교 207호
중급-교 206호
고급-교 205호
신청 및 문의 : 예배다부(교 207호)

3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번호	이름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I	II	III	IV	V			I	II
3	7	정성현	김은	김의철	강도용	최지운	김수연	허은숙		이종석
	14	안석현	김은호	차신동	남순우	배춘식	최준호	이영숙		조용기
	21	조중환	신상수	이	이철호	박찬성	최상기	전병자		이해주
	28	박철구	오진국	김영달	정경길	노영한	김연태	김 순		안정자

이번주(사수절) 특별새벽기도회 담당

	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주일)
설교자/기도자	안창덕/박덕양	안창덕/강두형	안창덕/최세진	안창덕/김윤환	안창덕/윤종국	안창덕/김정연	안창덕/안태순

예배 담당안내 (3/3~3/7)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3/3	수요 II		정현민 김진아	군건회 서러(간 5-1-6) 김성근 목사
3/5	주요 II		이재영 김지현	성령의 열매(간 5-22-24) 박인기 목사
3/5	금요집회	특별찬양 (스프라이드 푸딩송/트럼펫 이영훈/멜로 전찬명)	조규호	고난 속으로 전진하신 그리스도(요 19:28) 이태복 목사
3/7	주일 I		김정수 정성민	주의 만전의 능력(고전 11:27-30) 이희식 목사
3/7	주일 II	숙회하신 주세루뎌와 소의 스프라이드 김소연(합창부 아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영은	주의 만전의 능력(고전 11:27-30) 나병영 목사
3/7	주일 III	구주를 생가만 해도 의 금관 앙상블(합창부 아 오페라)	이종대 김희철	주의 만전의 능력(고전 11:27-30) 김갑관 목사
3/7	주일 IV	이제저이 의 죄인들과 의/게이는 일체됨(이병 찬양대)	임현덕 강효승	주의 만전의 능력(고전 11:27-30) 여상기 목사
3/7	주일 V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의 스프라이드 이하나(합창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용득 최희승	주의 만전의 능력(고전 11:27-30) 정진호 목사
3/7	주일찬양		김찬원 김민아	지극히 높은 자여 25-44-6) 김성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참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거 드리는 예배)	본 당
천안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예배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철야	오후 10:3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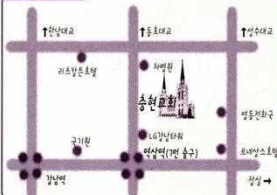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시간	장 소
영 아 부	1 오전 9:00 11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영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유 아 부	오후 10:50	교육관 201호	영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지 부	오후 10:50	제2교육관 1층	영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년 1부	오후 10:30	교육관 307호	영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후 10:30	교육관 4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관 할미 홀
소 년 부	오후 10:30	교육관 507호	선봉가장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중 등 1부	오후 9:00	교육관 301호	소 망 부	오후 11:00	복지관 2차 회의실
중 등 2부	오후 9:00	교육관 401호	예배다부	오전 9:00까지 200명(일)	교육관 207호
중 등 3부	오후 9:00	교육관 501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02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제2교육관 4층	오전 9:30	관 할미 홀, 배타니 홀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승가사범학교	구분 930	교육관 107호
청년 1부	점심 12:00	제2교육관 4층	구분 940	구분 930	출판 배타니 홀
			구분 950	오후 11:00	아 면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1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2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감동과 위임목사의 영욕을 강건케 하시기 생명의 복음을 전하에 대 주눅없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도구가 되시길 하소서.
- ② 종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 ③ 단기전교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따름으로 사람을 낚는 어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탐이 되게 하시고, CMTC와 언어훈련 및 털갈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 ④ 각 위원회(예배, 찬양, 교육, 전도, 선교, 봉사, 기구, 기성, 기형, 재정, 직제, 감사, 인사)의 목표 및 교운 훈련연구결과를 총헌장위원회가 심자가 복음의 능력 있는 전도를 위하여 원장에게 움직이게 하소서.
- ⑤ 성령, 안수성사, 귀신 쫓아내기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가정에서 주도의 복음이 복음의 고를 열기를 구하는 기도의 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⑥ 특별히 2월 첫 달 동안 전행하는 교회학회의 겨울 수련회 및 겨울 전교대회와 크리스마스 예배를 매우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경건되도록 하시고, 교회학회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김기영 12.12.27	김은호 교과연구부장	노영현 당무서기	오진국 법무팀장	이병학 법무팀장
엄필성 제2교과연구부장	장동호 인사팀장	이훈 인사팀장	남순우 교무팀장	정운석 교무팀장
김영진 강사팀장	문종구 정보팀장	조인재 정보팀장	김종주 강사팀장	최무경 강사팀장
김진재 강사팀장	이영호 강사팀장	차신득 강사팀장	김광남 강사팀장	이종석 강사팀장
안동욱 강사팀장	임두원 강사팀장	최기훈 강사팀장	김재경 강사팀장	전홍용 강사팀장
전필현 강사팀장	이정우 강사팀장	김단우 강사팀장	이규진 강사팀장	형영민 강사팀장
김영수 11.27.27	황기호 교무팀장	김원철 교무팀장	이형수 교무팀장	안동현 교무팀장
황민아 교무팀장	김기현 교무팀장	최운덕 교무팀장	이계인 교무팀장	박덕양 사무팀장
이태식 10.27.27	정영두 강사팀장	박용강 강사팀장	권민호 강사팀장	조종환 강사팀장
배준식 13.27.27	김영남 강사팀장	이신호 강사팀장	박찬식 강사팀장	최지훈 강사팀장
노영현 교과연구부장	박철구 강사팀장	정철길 강사팀장	신상수 강사팀장	고계승 강사팀장
강철형 강사팀장	김도현 강사팀장	이단우 강사팀장	정철환 강사팀장	신교만 강사팀장
함철주 강사팀장	윤민기 강사팀장	정선진 강사팀장	안석민 강사팀장	박우영 강사팀장

■ 부목사

5부	2부	3부	4부	5부
이준철 12.20 6.20	김영훈 9.20	여국진 9.20	김교성 신규환 12.20	안창덕 12.20
나영일 6.20	정진호 11.20	김용덕 정민기 11.20	고광환 1.20	
위정환 6.20	김정수 13.20	장 훈 신우현 12.20	이현덕 1.20	
이희식 5.20	최후남 5.20	하종현 15.20	안치원 신우현 1.20	
정승신 3.20	양승호 5.20	이성진 15.20	조주호 14.20	최성광 1.20
이재영 10.20	이재훈 15.20	이창수 2.20	김준희 애쉬비지 1.20	윤수인 애쉬비지 1.20

■ 여전도사

정연희 9.20	신동자 4.20	윤윤진 12.20	한영준 12.20	김민식 11.20
홍순애 10.20	이옥주 6.20	김발자 5.20	안태순 12.20	김경원 13.20
조옥자 7.20	강덕희 11.20	장혜주 12.20	최문실 11.20	전소희 13.20
김영순 1.20	김정자 15.20	이수경 19.20	김경희 14.20	이복순 19.20
류진희 19.20				

■ 찬양감독 강민구 ■ 전임지휘자 서순장
■ 전임감독자 김소연